



제목	Imperial Matter: Ancient Persia and the Archaeology of Empir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16. 3. 18.
저자	Lori Khatchadourian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32
ISBN 또는 ISSN	978-0520290525

내용 요약

이 책은 일상적인 물건에서부터 웅장한 건축물과 궁전에 이르기까지 물질들이 어떻게 아케메네스 제국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서이다. 아케메네스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와 피정복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한 균형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 행복과 질서를 부여하였고, 그 속에서 피정복민들은 기꺼이 아케메네스의 지배를 받아들인다고 믿었다. 아케메네스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지배 방식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자는 피정복민, 특히 아르메니아인과 아케메네스인들 사이의 관계를 물질을 통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책은 역사적이고도 이론적인 부분과 그 사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분은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 총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저자는 총독을 속주 지배라는 입장이 아니라 중앙과 피정복민을 연결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2장은 예술, 건축, 다른 물질문화에서 아케메네스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아케메네스인과 통합된 외국인들이 서로의 모습을 흉내 내는 현실은 상호융합주의의 세계임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물질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4장은 아케메네스의 지배에서 물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케메네스의 문화적 산물은 주권과 점령으로 인한 물질적 대리인의 상호의존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케메네스의 지배에 인간적, 물질적 한계를 제시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6장 아르메니아 산악 지역의 물질적 특징을 논하였다.